

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부 국정감사 동향

◇ 박대수 의원 순환골재 속성 관련 이중잣대 문제지적 및 관리기준 마련요구

◇ 윤준병 의원 민간 건설사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실태 지적 및 처벌강화 요구

지난 '20.10.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순환골재 속성 관련 환경부 해석의 혼선 문제와 민간 건설사의 상습적인 건설폐기물법 위반실태 등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박대수 의원 주요 발언

박대수 의원은 환경부가 순환골재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서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관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특히,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기준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순환골재 속성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및 품질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윤준병 의원 주요 발언

윤준병 의원은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우건설의 김형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건설폐기물 부실관리 등으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사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를 대상으로 배출자들의 상습적인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 강화,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순환골재의 속성 관련 기준 마련 및 배출자의 처벌기준 강화 등에 대한 환경부 검토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사항이 유권해석 변경, 법령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 국정감사 중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발언	환경부 답변
박대수 의원	○ 순환골재 속성 관련 환경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	- 정부 재활용정책 등을 고려하여 순환골재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위 부여 필요성 공감
	○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등 조치 필요	- 관리기준 마련 검토
윤준병 의원	○ 폐기물 배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필요 - 형사처벌 및 관급 입찰 제한 등	- 배출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방안 검토